

제 14 호 (2021.8.31)

# 韓國社會教科教育學會報

발행인 : 박승규  
편집인 : 남호엽  
<http://www.kasse.or.kr>

사무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관 516호 일반사회교육과 사무실  
TEL: 043-230-3507 E-mail: kasse21@daum.net

## 학회장 인사말

어느덧 네 번째 학회장 인사를 드립니다. 제 임기도 코로나와 함께 시작해서, 코로나와 함께 끝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것을 코로나가 삼킨 2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온한 일상생활도 힘들었고, 제대로 된 학회 활동도 할 수 없었던 2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학회를 위해 헌신 해주신 임원진들과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학회를 응원해주신 학회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5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글자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서도 교육의 정치화는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학회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모습 견지했으면 합니다. 글 속에 갇힌 교육의 모습을 되살리고, 현장에서 살아있는 교육의 모습을 재연했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진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우리 학회가 학문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학회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성명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의 고등학교 교과목 구조 개편 권고문에 대한 성명서

최근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고등학교 교과목 구조 개편에 관한 권고문(21.7.27)’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선택권 확보를 위해 기초 및 탐구 영역의 과목 선택수를 적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탐구영역 일반선택 과목 수를 4개 이내로 개발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사회탐구 영역의 일반선택 과목수는 현재 9개에서 4개로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교육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교사의 교육·수업 전문성 약화만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학교가 책임지는 공교육 강화 이념과도 충돌한다. 나아가 충분하고 타당한 근거 제시도 없이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 수를 과학탐구 영역과 동일하게 4개로 축소하라는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교과로 역할해 온 사회과 교육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는 현 시대가 요구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강조하며 지원해 온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향에도 역행한다. 이에 우리 학회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명확히 밝히고 위원회가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해당 권고문을 작성하였는지 공개하라.**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명목 하에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에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개정안 마련에 필요한 역할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해당 위원회가 교육과정 개정에 필요한 최적의 거버넌스인지 어떠한 자료와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 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에 대해서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어떠한 근거와 논리로 탐구영역의 교과목 수 감소를 권고하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명확히 밝히고 위원회가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해당 권고문을 작성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2. 교육부는 학습자 선택권 확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지원이라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일반선택 과목의 구성 원칙에도 반영하라.**

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가 제안한 탐구영역의 일반선택 과목을 4과목 이내로 구성하라는 권고안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별 교과 특성과 각 과목의 목표와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제안이다. 또한,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진로 탐색이 가능한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2022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도 역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 개정 배경의 핵심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학생의 진로선택과 학습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하는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에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융합선택 과목 신설, 진로선택 과목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전반적인 교육과

정 개정 취지와 달리 일반선택 영역의 과목 수는 일률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공통과목, 일반선택 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교과 수업’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고교학점제, 진로·융합선택 과목 수업을 통한 교육’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대립 관계로 파악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학습자는 일반선택 영역에서도 다양한 과목 선택권과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현행 권고안대로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이 축소된다면 탐구영역에서의 학습자 과목 선택권 제한은 물론 통합적 민주시민의 역량 습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습자 선택권 확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지원이라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일반선택 과목의 구성안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책연구팀이 진행 중인 사회탐구 영역의 교과 개정안(현행 9과목 유지안), 학계와 학교 현장의 의견(현실적으로 교사가 수업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교과 수업과 새로운 교육 영역의 연계 방안 모색 필요, 새로운 교육 영역에 대한 준비와 적응 기간 필요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3.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영역 조정(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일반선택 과목의 교육과정 재구성 논의 없이 축소만 논의되는 현 상황을 전면 재검토하라.**

교육부는 잦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피로감과 혼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는 권고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이러한 혼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어야 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는 2021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고등학교 졸업생을 이제 첫 배출하였으며, 대학입시에 2015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가 온전히 반영되는 것은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2021년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시도한 통합형, 융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선택 영역의 확대, 융합·진로 선택 과목을 담당할 교원 자격의 확대, 이로 인한 공통 영역과 일반선택 영역 과목의 축소를 일방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특히 대입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변화할 수능체제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권고한 진로선택과 융합선택의 신설 및 일반선택 과목 축소안은 교사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에게도 매우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영역의 조정(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일반선택 과목의 교육과정 재구성 논의 없이 축소만 논의되는 현 상황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현 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가 대표하지 못하는 학교 현장, 교과교육 전문가, 유관 학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사회과의 기본과목으로서 사회과 교육의 목적과 본질을 담보하는 일반선택 과목의 개정은 결코 현재의 권고안처럼 획일적, 기계적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반드시 사회과교육 전문가들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관련 쟁점들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개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평등하게 참여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집행해주기를 바란다.

2021년 8월 20일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학회 공지사항

### 1. 2021년 연차학술대회 개최 보고

2021년 하계학술대회가 지난 1월 21일 Zoom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사회과에서 타자 이해 시민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4개 분과 14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종일 교수님(대구교대)께서 ‘시민성 교육을 위한 사회과 통합 구성’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해주셨습니다.

### 2. 2021년 춘계 학술발표회 개최 보고

2021년 춘계학술발표회가 지난 4월 24일 Zoom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층성과 역동성 문제’라는 주제로 서용선 박사님(국회보좌관)의 발표와 유종열(공주대), 이대성(고양능곡고), 정현이(대전느리울초) 선생님의 지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 3. 2021년 하계 학술대회 개최 보고

2021년 하계학술대회가 지난 8월 12일 Zoom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과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라는 주제 아래 4개 분과 13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정보 교수님(부산교대)께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교육의 새로운 철학’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해주셨습니다.

## 한·일 학술교류회 보고

2021년 8월 28일(토)에 제9회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일본전국사회과교육학회 국제학술교류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1년 연기되어 2021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Zoom을 활용하여 국제학술교류를 개최하여, 양측 학회로부터 참가한 약 50명의 회원이 한국과 일본의 사회과교육

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제9회 국제학술교류의 테마는 “한일관계의 현재와 사회과교육의 역할”이었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회과교육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즉, 사회과교육은 어떠한 시민을 육성할 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한 이번 국제학술교류에서는 각 학회로부터 추천된 각 1명의 발표자와 지정토론자가 테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일본전국사회과교육학회에서는 오카야마대학의 카미타 미치코(紙田路子) 박사가 “가치조정능력의 육성을 위한 방재교육의 수업 설계 -초등학교 6학년 소단원 ‘수해로부터 생각하는 지역의 방재’의 설계를 통하여-”를 발표했습니다. 카미타 박사는 가치조정능력, 즉 “협동화” 사회를 지향하며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계속해서 갱신·재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안하는 것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가치대립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로부터는 연세대학교교육연구소의 차보은 박사가 “트랜스내셔널 시민교육의 가능성 -한일 어린이들의 기억의 대화를 통해-”를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가 아닌 개인적인 “기억”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억의 대화”를 통해, 차보은 박사는 기억의 연대에 근거한 트랜스내셔널 시민교육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두 편의 발표에 대해 일본전국사회과교육학회에서는 기후대학의 다나카 노보루(田中伸) 박사가,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에서는 대구대학교의 박남수 박사가 지정토론을 담당하였습니다. 두 명의 지정토론자 모두 두 편의 발표에 대해 전면적으로 동의하며, 토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논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발표자가 육성하고자 하는 시민의 이미지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 기억에 중점을 둔 사회과교육을 실천할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 (객관적인 역

사인식 등), 트랜스내셔널과 코스모폴리탄과의 관계, 내셔널의 관점과 트랜스내셔널/글로벌의 관점이 충돌할 때의 대응 등이 논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지정토론에 대해 각 발표자는 자신의 실천에 근거하여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선 공공권 만들기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보충하여 설명했습니다. 그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역사교육에 대한 양국의 다른 문화가 상호이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 특히 일본에서는 “민감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긴장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민감한 역사”라고 해도 진실되게 그 역사를 마주할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이번 국제학술교류회와 같은 풀뿌리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와 일본전국사회과교육학회는 국제학술교류를 통하여 학문적 네트워크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많은 참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획]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김종성(히로시마대학)

일본전국사회과교육학회: 쿠와바라 토시노리(桑原敏典)(오카야마대학)

[운영]

사회:

쿠와바라 토시노리(桑原敏典)(오카야마대학), 후쿠다 요시히코(福田喜彦)(효고교육대학)

번역:

(일본어→한국어):후쿠다 요시히코(福田喜彦)(효고교육대학), 김도연(히로시마대학대학원)

(한국어→일본어):김종성(히로시마대학), 차보은(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통역:

김종성(히로시마대학), 김도연(히로시마대학대학원)

질의응답:

후쿠다 요시히코(福田喜彦)(효고교육대학), 카타야마 모토히로(片山元裕)(후지미다이소학교)

### 학회원 동정

- 유종열 이사님(공주대 교수)께서 신간 저서 『주제와 함께 하는 토의·토론수업』 (태일사, 2월)을 출간하셨습니다.
- 이정희 이사님(광주교대 교수)께서 신간 저서 『사회과 홀리스틱 수업분석 방법론』 (에듀컨텐츠휴피아, 3월)을 출간하셨습니다.
- 김다원 이사님(광주교대 교수)께서 신간 공저서 『세계시민학 서설』 (주류성, 3월)을 출간하셨습니다.
- 김종성 이사님(히로시마대 교수)께서 신간 편저서 *Lesson Study-based Teacher Education: The Potential of the Japanese Approach in Global Settings* (Routledge, 4월)을 출간하셨습니다.

### 학회지 발간 소식

<사회과교육연구> 제28권 1호와 2호가 2021년 2월과 5월에 발간되었습니다.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권 1호>

- 한국 사회과의 정착기에 나타난 피바디 사절단의 활동과 영향(남호엽)
- 역사교육 내용구성을 위한 생활사의 재개념화(김한중)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과교육을 받은 인간(노경주)
- 초등 사회과 교과서 연구의 동향 분석(홍미화·곽혜송·정태호)
- 사회과 학습에서 Design Thinking의 활용

가능성 탐색(안영식)

<제28권 2호>

- 4차산업혁명 시대 정치참여 양상의 변화와 시민교육적 함의(박상영)
- 한·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경제교육 내용 비교 연구(유종열)
- 영화 속 이주여성을 향한 통제적 이미지와 교차성: 영화 “완득이”를 중심으로(강원준)
-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역사 영역) 교과서(김민수)

현재 「사회과교육연구」 제28권 4호의 발간을 위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옥고가 투고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호의 발간 예정일은 11월 25일(제28권 4호)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으로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사회과교육의 이론 및 실제
- 자격: 본 학회 회원 또는 사회과교육 연구와 실천에 종사하는 사람 (논문 게재는 연회비를 납부한 본 학회 회원에 한함)
- 제출 방법: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http://kasse.jams.or.kr/>)

### 학회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본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한국사회과교육학회, <http://www.kasse.or.kr>)상의 온라인 신청 및 춘·추계 학술발표회 및 연차학술대회 등의 오프라인 행사 참여시 현장 신청을 통해 학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하여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시면 연간 4회에 걸쳐 발행되는 학술지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연구물들을 무

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일반회원 3만원, 기관회원 10만원, 평생회원 50만원이며 납부 방법은 아래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학회의 학술지는 연간 4회에 걸쳐 발간되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서 2월, 5월, 8월, 11월 말에 발간되며, 투고, 심사, 게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가입 관련 문의

남호엽(운영사무국장) hynam@snue.ac.kr

조윤진(운영사무국장사) kasse21@daum.net

• 연회비 납부

일반회원: 3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이사회비: 50,000원

• 연회비 입금계좌

농협 302-1242-1164-51 예금주: 남호엽

• 투고 관련 문의

류현중(편집위원장) narrahj@jejunu.ac.kr

곽병현(편집위원사) kasse1994@hanmail.net

• 논문심사료 납부

투고시 심사료: 70,000원 (게재비 별도)

• 심사료 입금계좌

국민 645102-04-117264 예금주: 류현중

이창현, 이해영, 임용덕, 장덕근, 장원순, 장진아, 장혁준, 정현이, 조수진, 조주희, 차보은, 최병영, 최석현, 최영아, 한동균, 한준희, 허영훈, 현승숙  
<총60명>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 가나다순>

강창숙, 곽병현, 남호엽, 노경주, 류현중, 이동민, 이동원, 장덕근, 장원순  
<총9명>

<학회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 가나다순>

강창숙, 권오현, 김선미, 김영석, 김원겸, 김한중, 남상준, 민 윤, 박남수, 박용조, 손병노, 양정현, 오연주, 이동원, 이서영, 이재현, 이정희, 이종일, 이해영, 전희옥, 정필운, 정호범, 주웅영, 최병모, 최용규, 한관중, 허수미, 홍미화  
<총28명>

**학회비 납부자 명단**

2020.08.01.~2021.08.27. 납부 기준

<학회비 납부자 명단 - 가나다순>

강원준, 강필규, 고희석, 곽병현, 곽혜송, 김민수, 김상무, 김세훈, 김영현, 김용신, 김일방, 김종성, 김현우, 나경훈, 남경인, 남호엽, 류현중, 문금명, 박경수, 박니은, 박명화, 박상영, 박상준, 박선경, 박선웅, 박성진, 박애경, 박주현, 박찬교, 배화순, 송민섭, 심광택, 안영식, 양지훈, 유종열, 윤요순, 이광원, 이성호, 이수경, 이수룡, 이지영, 이찬우,